

# 전남 관광 매력 중동에 알린다

## 전남도, 걸프협력회의 주요 언론사 초청 팸투어

“관광 전남, 이제 중동이다” 전남도가 동남아와 일본 등을 넘어 관광의 매력을 중동에 알린다. 전남도가 한국관광공사,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중동 현지 언론사와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6일까지 3일간 전남의 관광자원과 문화체험을 소개하는 팸투어에 나섰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5월 개최한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기념 한국 관광 로드쇼’ 해외 관광설명회 성과로 이뤄졌다. 중동의 주요 언론사가 전남을 방문해 관광·문화체험과 즐길거리를 취재해 중동지역에 소개할 예정이다. 방문단은 두바이 정부 소속 아랍 에미리트(UAE) 최대 미디어 기관인 알바얀(Al Bayan)

과 사우디아라비아 제2의 도시 제다에서 최대 구독자 보유 미디어인 오카즈(Okaz), 카타르 제2뉴스 채널인 도하뉴스(Doha News) 등 4개 언론사 관계자와 400만 명 이상의 팔로워(팔로어)를 보유한 영향력자(인플루언서) 2명으로 총 6명이다. 이들 언론사는 채널별 2회 이상 전남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영향력자는 짧은 층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체험, 미식 등 전남에 특화된 테마 관광 콘텐츠를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중동 관광시장에서 선호하는 자연자원인 순천만국가정원, 신안 천사섬 분재공원과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퍼플섬,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소개한다. 한류 열풍을 잇는 케이(K)-드라마의 촬영지인 목포 근

대역사관, 순천 낙안읍성, 구례 쌍산재와 천은사 등도 선보인다. 앞으로 전남도는 중동시장에서의 전남 관광 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중동 관광객을 위한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관광상품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항공사인 사우디아항공의 인천-리야드 직항노선 취항이 확정돼 오는 8월 중순부터 운항할 예정인 만큼 이를 활용한 중동 관광객 전남 유치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지난 5월 중동 방문을 통해 전남이 중동시장에서 매력적인 관광 목적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중동 관광객이 선호하는 산과 해변, 문화자원 등을 전남의 우수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기 극성에...병해충 방제 작업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모기 등의 해충 등이 극성인 가운데 5일 오전 광주 북구 양산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북구 청공원녹지과 산림팀원들이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강기정 광주시장, 첫 정례조회서 ‘즉문즉답’ 소통

## “이미지가 강하신데...”

## 공직자들 날카로운 질문 눈길

강기정 광주시장이 첫 직원 정례조회에서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즉문즉답’식 소통에 나서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강 시장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7월 정례조회에서 ‘시장님 당황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공직자와 토크’ 행사를 진행했다. 패널로 자원한 공직자 4명이 질문하면 강 시장이 즉답하는 형식이었다. 토크 사회자로 나선 나우철 주무관은 강 시장의 강성 이미지를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이 방송에서는 서로 욕하고 싸우다가도 여의도 술집 가서는 서로 형남·동생 한다는 데 사실이냐, 국민의힘 의원 누구와 친분이 두텁냐”고 물었다. 이에 강 시장은 “정답이 다르고 정책도 다르다

보니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대의를 위해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소통하고 협력한다”고 답했다. 한 직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나경원 전 의원의 절전에 대한 뒷얘기 등을 물었고, 강 시장은 실제 이날 토크 제목처럼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며 민선 8기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도 했다. 강 시장은 “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106%에 달하고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주택에 비해 실제 계획된 공급량이 훨씬 많은 문제도 있다.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사회 주택’ 모델 등 주택정책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직원들은 또 시장의 평소 인적 관리, 직원들과의 스킵십 확대 등에 대한 질문과 제안 등을 내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총력

## 한국광학회 등과 ‘심포지엄’

전남도가 우리나라 과학계와 손잡고 기초과학연구와 첨단산업의 총아로 평가받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를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광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와 함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6일까지 3일간 열리는 한국광학회 주최 ‘2022 하계 학술대회(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특별세션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전남도가 2023년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조속한 구축과 국가적 지원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좌장을 맡은 석희용 광주과학기술원(GIST) 물리광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기초과학 연구를 선도하고 레이저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에 대한 국가 차

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용 전남도 에너지공대지원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과학기술과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전문인력 양성, 레이저 연구기관 유치, 레이저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초고출력 및 고에너지 레이저를 기반으로 기초과학 뿐만 아니라 반도체·광학소자·나노부품 초미세 가공, 우주·항공용 금속 개발, 레이저 무기 및 의료장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첨단시설이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전남에 유치하면, 에너지 신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우주항공·신소재 등 레이저와 관련한 국가 첨단산업 선점이 기대된다. 특히 90% 이상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레이저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관련 기업을 전남에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들, 노동이사제 속속 도입

## 8월부터 노동이사제 전격 시행 전남개발공사 등 5개 대상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서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들도 노동이사를 새로 선임하는가 하면,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제 14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상임이사에 노동자 이사를 포함하는 개발공사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을 심의, 의결했다. 개발공사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오는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 후임으로 노동자 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공사 노조원 1명이 임기 3년의 노동이사에 공모한 상태로, 조만간 개발공사 노동자들의 투표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개발공사뿐 아니라 전남도 산하기관 중 노동이사제를 운영해야 하는 공기업, 출연기관은 전남개발공사, 순천·강진의료원, 테크노파

크, 바이오산업진흥원 등 5곳으로 파악됐다. 순천의료원의 경우 지난 5월 임기 3년의 노동이사를 선임, 운영중이며 강진의료원은 오는 10월 노동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인 1명의 비상임이사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으로, 노동계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입을 주장해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서 우수 11개 선정

## 대상 신안 ‘파인크라우드’

전남도는 ‘2022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파인크라우드’가 대상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정원 함께 나누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테스트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산림청과 월간 가드닝에서 후원했다. 정원을 직접 만들고 가꾼 개인정원(개인주택정원)과 근린정원(카페, 음식점 등) 46개소가 응모했다. 대학교수, 정원 평론가 등 정원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5개소, 특별상 3개소 등 11개소의 정원을 선정했다. ‘파인크라우드’는 ‘소나무와 함께 즐기는 정원’

을 콘셉트로 소나무 분재, 자연석 폭포 등 한국적인 정원 모습과 현대미가 가득한 실내정원, 휴게소 등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았다. 최우수상 개인정원부문은 ‘솔매우 정원’이, 근린정원부문은 ‘성립정원’이 영예를 안았다. 개인정원부문 우수상에는 여수 꾸꾸는 정원, 무안 비밀의 화원, 순천 연못정원, 근린정원부문 우수상에는 순천 예술의성, 여수 프롬나드가 선정됐다. 정원을 만든 정원주들의 많은 노력이 들어간 해남 엄마의 정원, 완도 선이 장미센터, 진도 꽃동산 정원은 특별상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임대 및 특판 안내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임대 안내			
층	호실	임대면적	호별 위치도
1	101호	27평	1층 101, 102, 103
	102호	40평	
	103호	51평	
2	201호	27평	2층 201, 202, 203, 204
	202호	28평	
	203호	43평	
	204호	82평	
3	301호	금남몰란트치과	3층 301, 302, 303
	302호	72평	
	303호	83평	
4	401호	103평	4층 401, 402, 403
	402호	72평	
	403호	83평	
	501호	MG 문화센터 (갤러리 대관 환영)	
502호	MG 골프클럽 (회원 대 모집)		

### 사옥개관기념 무공무진 특판

**3%** 정기에탁금 (1년)  
(300억원 한도)

### MG골프클럽 특가

구분	이용기간	정상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월 이상 (10%)	40월 이상 (15%)	50월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조건 문의 (영업지원팀)  
\* 특가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할인 금액 2만원)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